방콕시 관리자급 공무원단 시청방문 환영사

【 한-태국어 순차통역 】

싸왓디 캅(안녕하세요)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서울시 국제협력국장 강필영 입니다. '자유의 나라'라는 뜻인 태국에서, 그 수도인 '천사의 도시' 방콕시 공무원 여러분의 서울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(통역)

태국은 한국 전쟁 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전투병력을 파견한 전통적인 우방국이자, 올해로 수교 60년이 된 오랜 친구입니다. 방콕시는 서울과 2006년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후 교통,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공유와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. 저 또한 국제기구 행사 참여를 위해 이번 달 말 방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. (통역)

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전쟁 이후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빠르게 극복하면서, 도시의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많은 경험과 이에 기반한 정책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방콕에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했던 것처럼 서울시는 주요 정책들을 아시아, 중남미 등 세계 28개국 39개 도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. (통역)

오늘 브리핑을 요청하신 서울시의 빅데이터와 전자정부 관련 정책도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마트 도시 구축 정책의 일환으로, 방콕시와 방콕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 (통역)

"물과 배는 서로 의지하고, 호랑이와 숲은 서로 의지한다."는 태국 속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서울과 방콕 두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거센 변화의 물결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(통역)

다시 한 번 완타니 왓타나 방콕시 부사무차관님을 비롯한 스리랑카 대표단의 서울시 방문에 감사드립니다. 컵-프라 쿤 캅!(감사합니다). (통역)